

TV 1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6-12 and 1-12 listing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태양, 뜬다

‘링가 링가’ 선공개...3년 만에 2집 초읽기

빅뱅 멤버인 태양(본명 동영배·25)의 솔로 2집이 공개되기까지 3년의 세월이 걸렸다. 태양이 3년 전부터 구상해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했지만, 발매 일정이 미뤄지면서 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업을 하다가 인트로곡 ‘라이즈’가 나왔고 해외에 여행을 가거나 빅뱅의 월드투어가 있는 나라에서 유명 프로듀서들과 놀이하듯 공동 작업을 했다. 태양이 작사, 작곡 등에 참여한 트랙은 모두 6곡. 알앤비와 힙합을 기본으로 하되 일렉트로닉, 발라드, 록 성향이 들어간 곡까지 다채로운 장르를 시도했다는 게 그의 설명.



EBS

Table listing EBS programs such as '세기의 눈', '미술품탐색',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with their respective broadcast times.

Table titled 'EBS플러스1' listing programs like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세계의 무형 문화유산', '내신6강'.

Table titled 'EBS플러스2' listing programs like '다큐프라임 세계의 자연 시리즈', '수학의 원리 마더미터', '매경 TEST 시험대비 강좌'.

에일리 “nud 사진, 속옷 모델 제의에 속아 촬영한 것”



nud 사진 유출 논란이 인 가수 에일리(본명 이예진·24) 측이 11일 “에일리의 사진이 맞다”고 인정했다.

네티즌들이 에일리의 nud 사진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불안감에 빠져 있던 에일리가 현재 유흥업계에 빠져 있던 친구에게 이 내용을 털어놓고 상의했다”며 “상의 도중 사진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 남자의 설득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지 않아 사기단은 검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가 이번 사진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 후 불안감에 빠져 있던 에일리가 현재 유흥업계에 빠져 있던 친구에게 이 내용을 털어놓고 상의했다”며 “상의 도중 사진의 내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전 남자의 설득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2일(음 10월 10일 壬午)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the 12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the 12 zodiac signs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TV 하이라이트

여성 자궁 질환의 모든 것



명의 건강비결(EBS·오전 10시20분)=자궁 질환의 명, 이병석 교수(강남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누구보다 여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의사다. 자궁의 병이 들면 여성들은 마음에도 병이 생긴다. 그런 마음부터 치유하려고 노력하는 명의의 중의 명이다. 자궁의 작은 신호도 놓쳐선 안 된다고 말하는 이병석 교수를 통해 여성을 이해하고, 관찰하면서 자궁 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본다.

푸틴 대통령과의 대담 분석



시사기획 창(KBS1·밤 10시)=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을 맞아 앞둔 지난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대담을 진행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단독 대담 내용을 자세히 전한다. 푸틴 대통령은 KBS와의 단독 대담에서 한국과의 인연, 한-러 경제협력,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극동개발, 6자회담과 비핵화, 한반도 통일 등 동아시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철도와 가스 연결, 조선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직접적이고 상세하게 언급했다. ‘시사기획 창’에서는 푸틴과의 단독 대담과 함께 국내외 저명한 러시아 전문가를 스튜디오투로 초청해 푸틴의 대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석을 제공한다.

이원종 빈자리 채우는 신입대원은



심장이 뛰다(MBC·밤 11시15분)=정든 부산을 떠나 심장이 뛰다 대원들이 도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찾은 곳은 세계로 인정된 문화유산, 화성 있는 수원. 정신적 지주 이원종이 드라마 촬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큰 형님을 대신할 신입대원의 등장을 예고한다. 대원들은 “걸그룹”을 의지해 기대에 찬다. 한 남자가 아파트 난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다는 신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진다. 도착한 현장에는 할아버지가 무방비상태로 아파트 난간에 의지한 채 아찔하게 매달려있다. 집 앞을 서성이는 광경 두 마리 때문에 무서워 밖으로 외출조차 못하고 있다는 한 여인의 신고 전화. 걸보기에 멀쩡해도 속은 어리다는 장동혁은 광경이 무섭다며 안절부절 못할 줄 모르는데.